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5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5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7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불쾌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를 배경으로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 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

관, 사회단체, 성, 종악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보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모하여 묵상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훨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을 다그쳐나가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열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조국판, 인민판을 지니시고 겹쌓이는 정신 육체적 퍼로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신 끊임없는 현

명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정치적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 당과 혁명의 혁사는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의 혁사인 동시에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 변혁의 혁사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의 진두에서 서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 강철의 담력과 무한한 애국현신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길우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톱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개화기가 펼쳐졌다고 하면서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조국판, 인민판을 지니시고 겹쌓이는 정신 육체적 퍼로를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찾으신 끊임없는 현

지지도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현신의 대장정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쌍으면 하늘에 땅을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수수한 애전복차림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열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 3대현장을 정립하시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하면서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며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위용펼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 앞에는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할 성스러운 파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 손손 높이 만들어 모시고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편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하며 당의 대외활동전략과 구상을 실현하여 세계자주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끌어온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애전솜옷차림으로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거연히 서시여 백두산대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천만민을 최후승리에 힘있게 불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대를 이어 끌어온 보위전사들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표시한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단위들에서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해달라는 청원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에 먼저 모시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장군님의 손길 아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난 전체 보위전사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신임의 표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1월

라고, 장군님을 만나뵙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동상을 단독으로 모신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대를 이어 끌어온 보위전사들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표시한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단위들에서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해달라는 청원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에 먼저 모시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장군님의 손길 아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난 전체 보위전사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신임의 표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대를 이어 끌어온 보위전사들의 절대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표시한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월

라고, 장군님을 만나뵙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위전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적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막아보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안전보위부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책략을 바로세우고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보위전사들은 늘 그려졌듯이 보이지 않는 전선길을 걸으며

벌리는 적들파의 싸움에서 맹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쑤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국가안전보위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나 당을 믿고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귀중한 우리 인민들이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어리석게도 땀땀을 끄는 불순적 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심각한 계급투쟁의 전조선에 서있는 것만큼 보위의 장검을 더욱 억세게 털어잡고 우리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전체 보위전사들이 사생결단의 의지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길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지휘성원들과 함께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아주시며 잘 형상화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1계단 유희장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유희장의 모든 유희시설들과 편의봉사건물들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도로들과 걸음길들을 아스팔트와 색보도블록으로 면밀하게 포장하고 방대한 면적의 록지구간에 새 품종의 잔디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구색이 맞게 심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광선총사격관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에 왔을 때에는 한심하였는데 개건보수하니 완전히 때벗이를 하였다고, 광선총유희기재들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새롭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광선총사격관 벽면을 손으로 쓸어보시

며 총대를 잡은 군인들이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였기에 전문미장공들 못지 않게 미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물놀이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텔의 실과 모래터 배구장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일신시킨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시였으며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훌륭하게 개건보수한 흐름물수조와 파도수조, 물미끄럼대수조도 만족하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계단 유희장 구내를 걸으시며 현대적인 유희시설들과 일신된 건물들, 새롭게 단장된 도로와 걸음길들이 주변의 수려한 경치와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2중회전 판성렬차를 비롯한 유희기구들을 동작시켜보시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으며 오락관에 들리시여서는 여러 오락기재들의 특성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꽂피우며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민족군인들의 투쟁에 의하여 만경대유희장 개건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인민군장병들이 만경대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군대의 위력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특히 일군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군민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걸어올렸다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만경대유희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키는데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성산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홀집을 데없이 번듯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와 색보도블록으로 단장된 걸음길을 걸으시며 유희장의 구획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금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면서도 평가하였지만 인민군장병들은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주요 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멀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군인들이 대성산유희장을 신설유희장을 못지 않게 잘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대관람차, 우주비행선을 비롯한 유희시설들을 새것처럼 원상복구하였을 뿐 아니라 편의봉사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개건보수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들, 잔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유희장구내에 옛 모습을 털어버리고 훌륭하게 일떠선 남문식 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강석으로 만든 식탁과 의자들도 주의 깊게 보시였으며 봉사계획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 휴식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산천경에 수려한 대성산기슭에 평양민속공원이 일떠섰습니다. 예로부터 울창한 소나무가 온 산을 뒤덮고 사계절 변함없이 푸르른 풍채가 류달과 《봉산만취》라고 《평양8경》의 하나로 꼽히던 대성산기슭에 평양민속공원의 전경이 거대한 화폭으로 안겨옵니다.

대성산과 소중한 추억의 인연을 맺고 있는 나는 에듯한 정파관심 속에 평양민속공원을 자주 찾곤 합니다.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볼수록 반만년민족사를 한눈에 펼쳐졌다는 민족적공지로 가슴이 후덥습니다.

1

유적, 유물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재보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제나름으로 역사유적을 보존관리하며 후세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나 민속공원과 민족원들이 있지만 자기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평양민속공원 같은 만년재보를 가진 나라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200정보나 되는 평양민속공원의 부지면적은 세계에 이름난 프랑스의 미니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미니이탈리아에 비하여 수십배나 된다고 합니다. 부지면적만이 아닙니다. 역사종합교양구, 역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민속촌구, 민속놀이구, 백두산 및 금강산공원구역 등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구까지 꾸려진다고 합니다. 민속촌구만 보더라도 고구려, 백해, 고려, 리조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담은 가정의례로부터 관혼상례, 식생활, 로동생활, 주택생활풍습을 보여주는 민속촌구만 돌아보는데 사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세계에 자랑높은 대동강문화의 발상지인 평양에서 100만년전부터 인류진화발전의 전과정이 이루어졌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원인, 고인, 신인화석과 그들이 쓰고 살던 동굴유적이며 원시초막들도 있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시조왕들의 무덤인 단군릉과 동명왕릉, 왕건왕릉모형도 있고 웅건한 모습의 옛 발해 궁전유적의 일부를 그대로 재현한것도 있습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불을 토하며 적진을 종횡무진하던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 푸른 물우에 등실 떠있고 리순신장군과 수군들의 생동한 모습을 형상한 한산대첩의 대형벽화도 있습니다. 왕궁과 관청, 군영과 경당, 무관집과 토호집 등 민족사의 각이한 시대의 살림집과 건축물들이 내부에 이르기까지 잘 꾸려져 있으나 그 어느 시기의 역사물영화는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반만년민족사를 빛내여주시였습니다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느라면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진화의 계단을 틀어온 그 삶의 자취들을 빙구석이 있을세라 찾아 여기에 다 펼쳐주시여 우리 민족이야말로 가장 명하고 강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껏이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고 합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한 평양민속공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이야말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길이 130m인 민속공원의 큰 대문에 들어서면 《평양민속공원》이라는 장군님의 친필비가 첫눈에 보입니다. 사랑의 친필을 우러르면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이름멸친 고구려의 옛 궁전이었던 안학궁터를 비롯한 역사유적이 많은 대성산기슭 힙종별의 명당자리에 몸소 터를 잡아주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큰뜻이 어려옵니다.

그이께서는 평양민속공원을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궁지와 자랑을 안겨주는 생동한 애국주의 교양장소로, 대로천역사박물관으로 꾸릴때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합니다. 규모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순색이 없게 하시려고 세계의 이름난 민속공원들을 다 돌아보고자라고 대표단까지 파견해주신 장군님이십니다.

민속공원설계에 관한 학술안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설계집단을 무어주신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공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평양민속공원은 주체적립장에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이시려 한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귀중한 애국유산입니다.

2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애국리념은 위대한 후계자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빛을 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후대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후손들에게 우리 자랑높은 역사와 문화

에 대한 궁지와 민족적자존심을 북돋아주고 자손만대로 이어가며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펼칠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새겨주는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평양민속공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충직하게 빙구석에 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현신의 자우이 력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8년 12월에 사리원민속거리를 현지지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고 합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한 평양민속공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이야말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난해 9월에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빙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역사들의 사상, 정신, 신앙, 정서와 경제력수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반영한 민속공원건설을 맡은 설계일군들도, 군인건설자들도 건설과정에 결음걸을 부단치는 문제들로 하여 고충을 겪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천리해안의 예지로 쇠검을 퇴위주시고 힘이 전할세라 힘과 용기를 주시며 같은 면적상 현대건축물보다 다섯배까지의 품이 드는 방대한 역사건축물공사를 최단기간에 단숨에 끌어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그이께서 민속공원건설을 얼마나 종시하시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두번째로 찾으신 대상이 바로 이곳이겠습니까. 흰눈덮인 민속공원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는 그의 영상을 TV로 봐오면서 나는 감동으로 젖어오는 눈을 부비었습니다. 내 가슴속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진 1958년 4월 30일, 대성산유원지 도로개통식 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힘들게 건설한 이 도로를 어떻게 차를 타고 돌아보겠는가고 하시면서 보슬비가 내리건만 우산도 마다하시고 대학생건설자들과 팔을 끌고 걸으시며 건설과정에 고적들도 많이 말풀하였다고 치하하시고 소문봉기슭에 이르시여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혁신자들은 앞으로 나오시오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웠던것입니다. 남녘의 철창속에서 1991년 4월 탄생 79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깊은 미동지에 깨알같이 박아 쏟아 편편지를 삼가 올리며 꿈속에서 그리던 자에로운 그 영상을 다시 뵈웁는듯 한 감격이 끊어울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소중히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역사학부 1학년 민청초급단체위원장이었던 제가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보시며 부주제군상들도 더 잘 만들어놓자고 하신 그 말씀에 눈굽이 찌릿해옵니다. 돌아볼수록 김정일조선의 번영기를 담은 특색있는 선률들이 대교향곡으로 울려옵니다.

유적, 유물은 후세가 보는 역사교과서입니다. 여기에 펼쳐진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1월의 흰눈덮인 건설장에 남기신 스스런 자우자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소한의 강추위에 발목까지

돌록 빠지는 생눈속을 앞장서 걸

으시며 드넓은 건설장의 구석구석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는 그이의 신발과 양말은 푹 젖어있었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근

300개나 되는 건설대상을 구체적

으로 빙해하시고 민속공원건설에

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공법을

받아들이며 역사주의적원칙과 현

대적미감에 맞게 공원을 잘 꾸릴

데 대하여 환히 가르쳐주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적유물들마다

다 민족의 향취넘치는

시대의 기념비가 되고 인류문

화발전에 기여하는 걸작이 되기를

바라신 장군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펼치시고 정력

적으로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의 대답하고 통 큰 정치의 모습

이 숭엄히 어려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민속

공원에 분별의 아픈 상처를 가

서버릴 위대한 통일경륜을 펼치

시고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통

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신 절세위인들의 업적도 아로새

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설명이 없

이도 내용이 명백히 전달되도록

북파 남으로 분별되었지

만 민족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은 민족공동

의 자산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평양민속공원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북남삼천리를

누비는 우리 민족문화의 삼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족을

잊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세상에 우리 나라와 같이 고

유한 민족성을 가진 단일민족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분별되었지

만 민족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은 민족공동

의 자산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평양민속공원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북남삼천리를

누비는 우리 민족문화의 삼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족을

잊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세상에 우리 나라와 같이 고

유한 민족성을 가진 단일민족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분별되었지

만 민족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은 민족공동

의 자산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평양민속공원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북남삼천리를

누비는 우리 민족문화의 삼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족을

잊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세상에 우리 나라와 같이 고

유한 민족성을 가진 단일민족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분별되었지

만 민족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은 민족공동

의 자산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평양민속공원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북남삼천리를

누비는 우리 민족문화의 삼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족을

잊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세상에 우리 나라와 같이 고

유한 민족성을 가진 단일민족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북파 남으로

분별되었지

만 민족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은 민족공동

의 자산임을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평양민속공원은

백두에서 한나까지 북

력사적인 10.4선언 발표
5돐기념 토론회 8일 고려
동포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
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리총북부위원장 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조경미 조선반도평화통일포럼 회장 등
미국, 중국, 카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에서 온 해외동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로길남 재미
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 대표가
발언하였다.

그는 혁신적인 10.4선언 발표
5돐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또 하나의
사변이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되리라
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리총북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리행
으로 해내외에서 자주통일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던 뜻깊은 시기에 또다시
북남수뇌분들의 혁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
언이 발표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10.4선언의 발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
국애족의 뜻과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 고
귀한 결실이며 조국통일운
동사에 득기 할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그는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 발표 5돐기념 토론회 진행

으로 해내외에서 자주통일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던 뜻깊은 시기에 또다시
북남수뇌분들의 혁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
언이 발표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
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
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
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고 말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현
시기 북남관계가 악화되어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계례는 자기 운명의 주
인이라는 확고한 자주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쳐 나라의 통
일을 이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본사기자

으로 해내외에서 자주통일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던 뜻깊은 시기에 또다시
북남수뇌분들의 혁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10.4선
언이 발표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
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
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
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과 10.4선언의 채택은 조
국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일의 활로
를 열어나가는 민족대단결의

파 10.4선언 행을 위한 파
업과 방도 등의 주제로 토론
들이 있다.

토론회들은 6.15공동선언
언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옷차림문화를 널리 소개선전하고 그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폐복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 연구사, 학생들과 창작가, 기능공, 가정주부를 비롯한 회망자들이 모두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1,300여 점의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조

민족적 색채에

제 10 차

선옷들과 남녀양복류 등이 출품되었다. 김영란 조선옷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인들의 넘원어린 우리 옷』이라는 전시회 주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민의 옷차림을 제일 문명하게 해주시려 온갖 노고와 치열을 바쳐 오신 전세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보다 혁신적인 암복으로 발전된 옷가공기술들을 널리 연구도입하여 우리 옷 차림을

그의 말대로 전시회장을 돌아보느라니 예로부터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옷차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족적 특성에 맞게 색과 무늬 장식 등을 잘 조화시켜 조선옷의 아름답고 우아한 멋을 살린 치마

을 더 활짝 꽂퍼워나가 출품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장은 그 자체로 전시회에서 출품한 조선옷들은 그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면서도 민족적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하여 볼수록 멋이 있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전달래와 살구꽃 등을 아름답게 수놓아 회려하면서도 우아한 결혼식옷과 명절옷, 일상옷들은 너성이라면 누구나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절

로 동하게 했다.

보기에도 깜찍하고 귀여운 감을 주는 남녀어린이 옷들을 품위있고 다양한 민족옷들을 내놓은 은하지도 국전시 대앞에서도 참관자들은 쉽게 말걸을 떼지 못하였다.

이번에 평양시 서성구역 종합복지점에서는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은 흰색 바탕치마의 가장자리에 붉은 색 장식을 하고 보석

를 그려 넣은 결혼식 옷과

미색 바탕에 목란꽃을 형상화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일상옷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량강도에서 출품한 백두산 천지물의 푸른색 바탕에 삼지연못과의 사연 깊은 전달래를 형상화 한 치마저고리를 비롯하여 색감과 문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선옷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

그리고 전시회장장을 돌아볼 수록 민족옷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발들어 선군시대 옷차림 문화를 더 활짝 꽂퍼워나가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가고 있는 창작가들의 노력의 일단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옷과 계

절옷의 도안 창작과 설계, 가

공에 대한 경습, 폐복기술도